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유미*

Impac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Breastfeeding Infants and Non-Breastfeeding Infants

Lee, You Me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의 영아 533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K-ASQ에 의한 영아발달 측정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유수유 어머니가 비모유수유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특히 부모역할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 영아에 비해 개인-사회성 발달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사소통 발달에는 총 12.4%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는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에만 영향을 미치며 그 외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에서도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유수유 실천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가족과 사회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양육스트레스, 영아 발달, 모유수유, 비모유수유

* 소속: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E-mail : sizuku123@hanmail.net)

I. 서론

영아기는 신체성장의 제 1 급등기이다. 최근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은 영아가 뇌세포의 발달과 전 생애 성장의 기틀이 마련하는 시기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Casey, Tottenham, Liston, & Durston, 2005). ‘모든 학습과 발달은 뇌에서 이루어진다. ‘는 뇌 기반 교육 패러다임에 따르면, 영아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뛰어나며 출생 후 양육 환경 및 경험에 따라 발달정도가 달라진다(Jensen, 2010). 영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스트레스, 수면, 영양과 애착, 어머니의 우울이다(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이는 영아의 발달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먹고 쉬고,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안정된 환경에서 촉진되며, 어머니가 우울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영아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양과 휴식 정서적 안정,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어머니의 양육활동과 심리상태는 영아발달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주영, 2012; 정옥분, 2010).

생후 3개월 무렵, 영아들은 목을 가누기 시작하여 주변을 살피며 웅얼이가 시작된다. 또한, 낮과 밤의 구분이 가능해져 수면리듬이 정착된다(삼성출판사, 2009). 즉, 생후 3개월 무렵을 기점으로 영아의 발달은 왕성해지며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개월과 같이 초기 영아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대상 표집의 어려움(정미라, 이정은, 박혜성, 2013)과 영아의 의사소통 및 학습능력에 대한 불신(한유미, 조정자, 강기숙, 2012)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후 3개월 무렵 시지각과 청지각의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영아는 능동적으로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한다(박남자, 강숙현, 박경희, 백미열, 성정숙, 오채선 등, 2007). 예컨대, 1~2개월 때는 엄마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던 영아가 생후 3개월이 되면 대부분 엄마 얼굴을 구분하고, 얼굴에 담긴 감정도 지각할 수 있어서 슬픈 얼굴, 기쁜 얼굴, 화난 얼굴을 구분하고 엄마의 감정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시지각이 급속히 발달하는 3개월 무렵, 영아는 청지각의 발달로 엄마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엄마를 구분하면서 엄마와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다(성현란, 이현지, 김혜리, 박영신, 유연옥, 손영숙, 2011). 이 시기에 형성된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토대로 영아는 외부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김유미, 2009). 따라서 3개월 무렵 영아가 엄마와 맺은 애착관계는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정미라 등, 2011).

지금까지 영아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영아가 만나는 가장 최초의, 가장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양육변인에 주목해 왔다(한유미, 조정자, 강기숙, 2012). 그 중에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이경선, 2011),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정미라 등, 2011), 어머니의 기질(이유미, 이정은, 2014), 양육행동의 민감성(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권인수, 최소영, 강영실, 양영옥, 2008), 신체접촉(김수정, 광금주, 2010; 이화자, 김영혜, 조영란, 2005) 등이 있으며 이들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민현숙, 문현경, 2013; Ainsworth, Blehar, Water & wall, 1978).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안재진, 2011; 이경선, 2011; 송연숙, 김영주, 2008; 김수연, 2010)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서 오는 어려움, 자녀의 행동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Abidin, 1992;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재인용)으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백영숙, 2007).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김미숙, 문혁준, 2005; 양미선, 김양은, 2012; Evans, Boxhill & Pinkva, 2008; Huth-Bocks & Hughes, 2008).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박수연, 2013; 서주현, 김진경, 2012)을 포함하여 이후의 발달, 예컨대 유아의 사회적 적응(김현미, 도현심, 2004), 사회성(박정희, 장영애, 2004)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민현숙, 문영경, 2013; 최정미, 우희정, 2004)과 문제행동(이유진, 박경, 2005)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안재진, 2011).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민현숙, 문영경, 2013), 영아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이대균, 임현주, 2013),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육아를 지원하고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손수민, 201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외(外)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양육의 주체자로서 어머니가 지닌 내(內)적 힘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이외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일상에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일이 많으므로 외부적 지원이 있다고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양육으로 신경을 쓰고 부모역할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송연숙, 김영주, 2008). 더욱이 어린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권경숙, 2008; 김혜라, 김진경, 2012). 이는 어머니를 지치게 만들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잃게할 뿐 아니라 이후에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경하, 서소정, 2009). 따라서, 양육 초기 단계부터 어머니가 어린 영아자녀와 교감하고 ‘엄마’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느끼는 경험이야말로 이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양육스트레스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양육스트레스 해법이라 여겨진다.

최근, 이경선(2011)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영아 변인으로서 모유수유를 지목하였다. 즉,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할수록 영아에게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분유수유와 달리 모유수유가 지닌 특성은 수유 시, 엄마와 아기의 피부가 직접 닿는다는 것이다. 이는 출생 초기 자녀와 신체접촉을 경험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이후 애정적인 돌봄 행위를 더 세심하게 한다는 김수정과 곽금주(2010)의 주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양육 시, 어머니를 어렵게 하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도 모유수유모는 분유수유모에 비해 영아자녀의 기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김미예, 장군자, 2009). 이는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어머니에 비해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이며 그 결과, 영아발달에 있어서도 모유수유 영아가 더 양호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3년마다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모유수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1970년대 90.0%를 정점으로 하여 1982년에 68.9%, 1994년 11.4%, 2000년에는 10.2%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 현재, 3~4개월 미만 영아의 모유수유 비율은 50.0%이며 6개월 무렵에는 32.3%로 감소되어 결국 생후 6개월까지 엄마의 모유를 먹는 영아비율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등, 2012). 이는 모유를 영

아 영양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6~23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하고 안전한 보충식을 권유하는 WHO의 권고사항에 비해 모유수유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의 어머니일수록 모유수유 비율이 낮다(김승권 등, 2012)는 보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유수유 장려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유수유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의학과 영양학의 입장에서, 영아발달에 필요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지닌 가치에 주목해왔다. 모유수유는 6개월 이전 영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성분(김기남, 현대선, 강남미, 2002)도 함유되어 있다. 또한, 영아의 신체적 발육에 미치는 우수함(권인수 등, 2006; 장군자, 김미예, 서순림, 신영희, 정귀애, 이인혜, 김선희, 2008)과 인지발달에 미치는 우수함(국립환경과학원, 2013)도 인식되어 영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권인수 등, 2006; Wong, Hockenberry, Wilson, Winkelstein, & Kline, 2003)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모유수유 관련 연구에도 심리학과 아동학 등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 모유수유가 어머니의 애착지향적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화자 등, 2005), 모유수유 체험을 통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체성 확립(김윤희, 2006), 모유수유를 통해 영아와 엄마 간의 일체감(신현정, 2006), 부모역할 자신감(권인수 등, 2008), 어머니 우울(이선옥, 정은순, 안숙희, 문길남, 박남희, 2003) 등 어머니 양육에 대한 모유수유의 가치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이미 모유수유를 체험한 어머니 개인의 경험(김윤희, 2006; 신현정, 2006) 혹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모유수유모 집단(권인수 등, 2008; 이선옥 등, 2003; 이화자 등, 2005; 장군자 등, 2008)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유방식이 다른 두 집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김미예와 장군자의 연구(2009)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이 또한 수유방식에 따른 어머니의 모애착, 영아 기질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차이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유방식이 다른 두 그룹 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영아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과 사회의 지지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 어머니와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차이가 있는가?
2.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간 차이가 있는가?
3. 수유방식이 다른 두 그룹 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약 3개월의 영아 53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

다. 모유수유 관련하여 3개월의 영아와 어머니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모유수유 비율이 3개월까지는 증가하나 이후부터 현저히 낮아진다는 통계 결과에 근거한다(보건복지부, 2012). 즉,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에 개인배경에 의한 편차가 비교적 적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가정은 G대학 부속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신부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 수강해 온 일반가정으로서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연구대상으로서 영아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 영아의 특성 (N=533)

| 변인 | n(%) | | M(SD) |
|-------|-----------|---------|--------------|
| 남아 | 281(52.7) | 현재 신장 | 62.16(4.697) |
| 여아 | 252(47.3) | 현재 체중 | 6.74(0.787) |
| 비모유수유 | 227(42.7) | 월령 | 3.01(0.122) |
| 모유수유 | 304(57.3) | 평균 수유횟수 | 7.10(1.710) |

연구대상 영아 중 남아는 281명(52.7%), 여아는 252명(47.3%)이며 전체 평균월령은 3.01개월 ($SD=0.122$)이다. 그 중 비모유수유 영아는 227명(42.7%), 모유수유 영아는 304명(57.3%)이다. 모유수유의 경우 수유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유량 대신 수유횟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하루 평균 수유횟수는 7.10회($SD=1.710$)이다.

3개월 영아의 현재 발육 상태는, 신장의 평균이 62.16cm($SD=4.697$), 체중의 평균이 6.74kg($SD=0.787$)으로 3개월 영아의 정상적인 발육상태를 보이고 있다(대한소아과협회, 2007). 3~4개월 미만 영아의 완전모유수유 비율이 57.0%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을 감안할 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2)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안지연(1999)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구체적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10문항, $\alpha = .831$),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7문항, $\alpha = .802$),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8문항, $\alpha = .757$)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다.

2) 수유방식

영아의 수유방식은 영아발달 측정 도구지에 어머니 본인이 기입한 ‘현재 수유형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수유 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합수유와

분유수유를 합하여 ‘비모유수유’ 집단으로 통합하고 이를 모유수유 집단과 구별하였다.

3) 수유횟수

영아의 수유횟수는 가정방문 전,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수유횟수를 측정하도록 어머니에게 부탁드렸고 그 결과를 어머니가 영아발달 측정 표에 직접 기입하였다.

4) 영아발달

영아발달 평가는 K-ASQ(허계형, 200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 II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된 도구로서, 현재 전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아동패널 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총 5가지 발달영역 -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력, 개인-사회성이 하위요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아이가 (웃을 때, 소리 지를 때, 웅얼이 할 때)높은 소리를 냈니까?’, ‘엄마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아이가 울음을 멈추니까?’ 등 의사소통에 대한 6문항,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니까?’ ‘아이가 어른에게 앉은 자세로 안겨있을 때, 목을 꼴꼴이 지탱합니까?’ 등 대근육 운동에 대한 6문항, ‘아이가 손을 펴고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펴고 있습니까? (신생아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면 잠깐이라도 그것을 흔들니까?’ 등 소근육 운동에 대한 6문항, ‘아이의 얼굴 앞에서(약 25cm 떨어져서) 작은 장난감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 아이가 장난감을 따라서 눈을 움직입니까?’ ‘아이가 누워있을 때, 장난감을 위에서 흔들어 주면 그 장난감을 향해 팔을 흔들니까?’ 등 문제해결에 대한 6문항, ‘당신이 아이에게 웃어주거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가 가까이 있는 당신을 보고 웃습니까?’ , ‘아이가 커다란 거울 앞에 있을 때 자신을 보며 웃거나 웅얼거립니까?’ 등 개인-사회성에 대한 6문항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 중 하나로 답변하고 점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각 발달 영역별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K-ASQ는 4개월에서 60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주 양육자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질문지로, 해당 월령의 ±1개월 이상까지 실시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 3.01개월이므로 4개월용 K-ASQ를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1년 6개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G대학 부설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양육 코칭의 일환으로, 출생 후 백일 무렵을 전후하여 어머니 동의하에 영아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영아의 발달 정도는 연구자와 양육전문가가 약 1시간 동안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측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745쌍의 영아와 어머니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어머니 설문지 중 부실응답은 제외하고 최종 533쌍의 자료(71.5%)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대상 영아의 인구학적 특성, 현재의 발육과 발달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차이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자료의 처리는 SPSS 19.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비교

모유수유 어머니와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수준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모유수유 어머니와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N=533)

| 하위 요인 | 수유 방식 | M | SD | t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모유수유 | 1.54 | .357 | -2.010* |
| | 비모유수유 | 1.61 | .402 | |
|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 모유수유 | 1.84 | .473 | -1.479 |
| | 비모유수유 | 1.89 | .428 | |
|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 모유수유 | 2.2 | .406 | -1.257 |
| | 비모유수유 | 2.26 | .380 | |
| 스트레스 총합 | 모유수유 | 1.87 | .317 | -2.035* |
| | 비모유수유 | 1.92 | .314 | |

* $p < .05$

<표2>와 같이, 모유수유 어머니와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유수유 어머니($M=1.87, SD=.317$)가 비모유수유 어머니($M=1.92, SD=.314$)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총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035, p<.05$).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모유수유 어머니($M=1.547, SD=.357$)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수준이 비모유수유 어머니($M=1.61, SD=.402$)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010, p<.05$).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수준도 모유수유 어머니가 비모유수유 어머니에 비해 낮은 편이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 간 발달 비교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 간 발달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 간 발달 차이 (N=533)

| 영아발달 | 수유 방식 | M | SD | t |
|-----------|-------|------|--------|----------|
| 의사소통 | 모유수유 | 8.61 | 1.523 | 0.346 |
| | 비모유수유 | 8.56 | 1.475 | |
| 대근육운동 | 모유수유 | 8.28 | 1.705 | 0.679 |
| | 비모유수유 | 8.17 | 1.9331 | |
| 소근육운동 | 모유수유 | 7.39 | 1.902 | 0.939 |
| | 비모유수유 | 7.23 | 1.956 | |
| 문제해결력 | 모유수유 | 8.02 | 1.627 | 0.519 |
| | 비모유수유 | 7.95 | 1.176 | |
| 개인-사회성 | 모유수유 | 8.10 | 1.663 | 1.972* |
| | 비모유수유 | 7.79 | 1.855 | |
| 발달 총합 | 모유수유 | 8.08 | 1.204 | 1.285 |
| | 비모유수유 | 7.94 | 1.277 | |
| 수유 횟수(평균) | 모유수유 | 7.45 | 1.674 | 5.443*** |
| | 비모유수유 | 6.63 | 1.647 | |

* $p < .05$, *** $p < .001$

<표3>과 같이,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총합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비교 결과, 개인-사회성 발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 영아($M=8.10$, $SD=1.663$)가 비모유수유 영아($M=7.79$, $SD=1.855$)에 비해 개인-사회성 발달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1.972$, $p<.05$). 그 외 영역의 발달도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 영아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유횟수를 살펴 본 결과, 모유수유 영아의 수유횟수($M=7.45$, $SD=1.674$)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수유횟수($M=6.63$, $SD=1.647$)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5.443$, $p<.001$). 즉,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 영아에 비해 수유를 통해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의 세 하위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세 하위요인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36\sim.466$, $p<.01$). 모유수유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간의 상관($r=.431$, $p<.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

스 간의 상관($r=.398, p<.01$)이며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간의 상관($r=.335, p<.01$)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경우에도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간의 상관($r=.519, p<.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간의 상관($r=.353, p<.01$),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간의 상관($r=.333, p<.01$)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상관관계와 비교하면, 모유수유 어머니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더 높은 편이며 비모유수유 어머니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기질 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와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간의 상관은 수유방식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상관 정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333\sim.336, p<.01$).

〈표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N=533)

| 하위요인 | 부모역할 스트레스 |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 수유방식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 | | | 모유수유 비모유수유 전체 |
|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 .431** .519** .466** | 1 | | 모유수유 비모유수유 전체 |
|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 .398** .353** .376** | .335** .333** .336** | 1 | 모유수유 비모유수유 전체 |

** $p<.01$

4. 영아의 발달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세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영아 발달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각각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1.000-1.228)에 가깝게 나타났고, 공차는 모두 1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었다. 또한 Durbin-Watson의 값은 2(1.794-2.091)에 가깝게 나와 자기상관의 위험이 낮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5〉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총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2개의 모델이 산출되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모델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266, p<.001$)가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총합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때 영향력은 6.8%에 이른다. 모델 2에서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beta=.130, p<.05$)를 추가하여 분

석한 결과,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총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7.9%로 증가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N=304)

| 종속변수 | 모형 | 독립변수 | B | β | t | R | ΔR^2 | F |
|-----------|----|------------------------------|----------------|---------------|--|------|--------------|-----------------------|
| 의사소통 | 1 | (상수) | 10.819 | | 29.543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435 | -.336 | -6.199 ^{***} | .336 | .110 | 38.424 ^{***} |
| | 2 | (상수) | 10.317 | | 25.425 ^{***}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 -1.735 .525 | -.406 .163 | -6.836 ^{***} 2.742 ^{**} | .367 | .129 | 23.387 ^{***} |
| 대근육 | 1 | (상수) | 9.151 | | 21.128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655 | -.118 | -2.070 [*] | .118 | .011 | 4.285 [*] |
| 소근육 | 1 | (상수) | 8.988 | | 18.800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041 | -.194 | -3.438 ^{**} | .194 | .035 | 11.821 ^{**} |
| 문제 해결력 | 1 | (상수) | 9.064 | | 22.015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675 | -.148 | -2.592 [*] | .148 | .019 | 6.717 [*] |
| 개인 사회성 | 1 | (상수) | 9.374 | | 22.441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828 | -.178 | -3.138 ^{**} | .178 | .028 | 9.844 ^{**} |
| | 2 | (상수) | 8.860 | | 19.095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 -1.136 .538 | -.244 .153 | -3.915 ^{**} 2.461 [*] | .225 | .044 | 8.032 ^{***} |
| 발달 총합 | 1 | (상수) | 9.466 | | 31.961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899 | -.266 | -4.804 ^{***} | .266 | .068 | 23.075 ^{***} |
| | | (상수) | 9.150 | | 27.744 | | | |
| | 2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088 | -.322 | -5.278 ^{***} | .291 | .079 | 13.939 ^{***} |
| | |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 | .331 | .130 | 2.129 [*] | | | |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 = -.336, p < .001$)가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때 영향력은 11%에 이른다. 모형 2에서,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beta = .163, p < .01$)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12.9%로 증가했다. 이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부적 영향($\beta = -.336, p < .001$)을 미치며,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beta = .163, p < .01$)을 미치며 영향력은 1.9%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그리고 문제 해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각각 1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대근육 운동($\beta = -.118, p < .001$)과 소근육 운동($\beta = -.194, p < .01$) 그리고 문제 해결(β

=-.148, $p<.05$)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영향력은 각각 1.1%, 3.5%, 1.9%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178, p<.001$)가 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때 영향력은 2.8%이다. 모형 2에서,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beta=.153, p<.01$)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4.4%로 증가했다. 이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1.6%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모든 발달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11%의 고유 영향력을 지닌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에서는 어머니의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가 미약하지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6>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N=227)

| 종속변수 | 모형 | 독립변인 | B | β | t | R | ΔR^2 | F |
|-----------|----|-------------|--------|---------|-----------|------|--------------|-----------|
| 의사 소통 | 1 | (상수) | 10.405 | | 27.064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147 | -.313 | -4.943*** | .313 | .094 | 24.435*** |
| 개인 사회성 | 1 | (상수) | 9.131 | | 18.231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831 | -.180 | -2.750** | .180 | .028 | 7.562** |
| | 2 | (상수) | 7.666 | | 10.021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1.114 | -.242 | -3.489** | .243 | .051 | 7.024** |
| | |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 | .848 | .174 | 2.512* | | | |
| 발달 총합 | 1 | (상수) | 8.902 | | 25.862 | | | |
|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598 | -.189 | -2.879* | .189 | .031 | 8.290** |

* $p<.05$, ** $p<.01$, *** $p<.001$

<표6>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총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1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189, p<.05$)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총합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의 영향력은 3.1%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313, p<.001$)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때의 영향력은 9.4%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대 근육 운동과 소 근육 운동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180, p<.01$)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때 영향력은 2.8%이다. 모형 2에서,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beta=.174, p<.05$)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5.1%로 증가했다. 이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2.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3개월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에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9.4%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는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가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유방식에 따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모유수유 그룹과 비모유수유 그룹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간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및 영아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3개월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모유수유 어머니가 비모유수유 어머니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김미숙, 문혁준, 2005; Evans · Boxhill & Pinkava, 2008; Huth-Bocks & Hughes, 2008)를 근거로 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모유수유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수준이 비모유수유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유수유 체험을 통해 ‘내가 해냈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자존감이 향상되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는 김윤희(2006)의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모유수유 적응 가능성이 높다는 김선희(2010)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모유수유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선순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모유수유는 양육스트레스, 특히 출산 후 새롭게 취득하게 된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심신의 부담을 모두 경험하는 양육초기의 어머니에게 부모역할 효능감을 키워주는 육아지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문혁준, 2004; 손수민, 2012).

둘째, 영아 발달 수준은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인 개인-사회성 발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 영아보다 개인-사회성 발달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에 모유수유를 충분히 만족한 경험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김수진(2002)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양육초기 신체적 접촉이 많은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애정적인 돌봄 행동을 더 세심하게 한다(김수정, 곽금주, 2010)는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12개월 영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한유미 등의 결과(2012)를 지지한다. 한편, 오정순(2012)은 어머니의 반응성이 14개월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반응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양육초기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아기 어머니의 신체접촉 연구를 통해 김수정과 곽금주(2010)는 신체접촉이 많은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애정적인 돌봄 행동을 더 세심하게 한다고 보고하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접촉이 모성본능을 촉진하는 기제임을 주장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하루 평균 수유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모유수유 영아가 비모유수유 영아에 비해 더 자주 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유를 통해 엄마와 아기의 살이 직접 닿을 뿐 아니라 그 횟수에 있어서도 비모유수유 그룹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신체접촉이 모성본능을 촉진하는 기제임을 감안할 때, 모유수유가 어머니가 지닌 모성본능을 자극하여 양육에 대한 반응성을 촉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생아 돌보기의 측면에서도, 수유나 목욕은 영양과 청결뿐만 아니라 영아사정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이유미, 김진숙, 박진옥, 안지혜, 윤은영, 정영희 등, 2014). 따라서, 수유 횟수가 더 많을수록 어머니는 수유를 하며 자연스럽게 영아를 더 많이 안게 되고, 더 자주 관찰하게 된다. 그 결과, 수유횟수가 더 많은 모유수유 어머니는 그만큼 영아의 체온과 몸의 상태와 미묘한 감정적 변화를 더 자주 살펴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응적인 양육으로 이어진다고 추측한다. 결론적으로, 모유수유는 어머니가 지닌 모성본능의 촉진과 아기의 상태를 빈번히 살피는 반응적인 양육 특성으로 영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발달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이며 아들의 영향력은 7.9%에 이른다.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이며 영향력은 3.1%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모유수유 군의 어머니와 영아가 비모유수유 군의 어머니와 영아보다 양육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유수유 영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민감하다는 결과는 모유수유를 통해 엄마와 아기가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용인하며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는 신현정(2006)의 해석과 매우 일치한다. 영아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스트레스는 영아의 뇌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환경요인이다(정미라 등, 2011). 모유수유를 통해 영아와 어머니는 서로의 감정을 더 긴밀하게 교감하므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권인수 등(2009)은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모역할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교육적 지지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하위 변인들의 영향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모유수유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발달에 11%, 개인-사회성 발달에 4.4%, 소근육 운동 발달에 3.5%, 문제해결 발달에 1.9%, 대근육 운동 발달에 1.1%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모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유아기의 소근육 운동과 문제해결 발달을 예측한다(Memisevic, H., & Hadzic, S., 2013). 따라서 모유수유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유수유 어머니가 느끼는 까다로운 자녀 스트레스는 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1.9%, 개인-사회성 발달에 1.6%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수유모가 분유수유모보다 영아기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김미예와 장군자(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이하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것이 있다. 즉, 젖 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칭얼거리는 자녀의 까다로운 행동에 대해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영아의 요구를 수용하며 반응함으로써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유수유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한다.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발달에 9.4%, 개인-사회성 발달에 2.8%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모유수유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도 어머니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강한나, 박혜원, 2013)과 일치한다. 한편, 비모유수유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발달을 제외한 다른 발달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덜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어머니 지각 스트레스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2.3%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모유수유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보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주변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비모유수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감소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 및 영아의 발달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첫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실천 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1,2 세대 부모교육을 제안한다. 모유수유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심한 시기는 대부분 임신 전(장군자 등, 2008)이며, 출산 예정인 어머니들이 수유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은 어머니, 언니 등 여성가족이 가장 많다(김승권 등, 2012). 그러나 이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출산을 앞둔 초보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고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이선옥 등, 2003). 따라서 2세대인 출산 예정 어머니와 1세대 어머니가 함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게 된다면, 어머니가 모유수유의 신념을 관철하는데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여부와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2*2 셀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양육지원 전략이 수립되길 제안한다. 이는 보육정책 운영에 있어 어머니가 처한 상황에서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필요한 지원을 예산과 방법 면에서 합리적으로 실시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표집이 어려운 생후 3개월의 모유수유 영아가정과 비모유수유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모유수유 가치와 영아가정의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며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일반 영아가정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그 외 지역이나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영아 가정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아를 포함하여 살펴보고 이를 본 결과와 비교하는 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 측정과 모유수유 여부에 집중하느라 그 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예컨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자녀 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취업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발달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모유수유 영아의 대, 소 근육 운동 및 문제해결 발달에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모유수유 영아와 비모유수유 영아의 6개월, 12개월 발달을 비교하는 종단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지닌 양육전문가들이 영아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따라서 영아의 행동을 비디오 촬영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판독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발달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613-622.
- 권경숙 (2008). 영아 인사행동의 특성 및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28(2), 143-168.
- 권인수, 이수연, 백경선, 양영옥, 이지원, 정향미 등 (2006). 모유수유아의 성장발달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2(4), 495-505.
- 권인수, 최소영, 강영실, 양영옥 (2008).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임파워먼트와 어머니 역할수행 자신감과 관계. **여성간호학회지**, 14(1), 20-27.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6(3), 143-160.
- 김기남, 현태선, 강남미 (2002).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수유양상 기초조사 : 수유관련 지식 수준 및 모유수유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3), 345-353.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1(5), 101-113.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미예, 장군자 (2009) 모유수유모와 분유수유모의 모아 애착 및 영아기질.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1), 107-115.
- 김선희 (2010). 어머니의 모유수유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0(2), 225-235.
- 김수연 (2010). 아버지의 영아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4, 110-153.
- 김수정, 광금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신체접촉에 대한 고찰: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89-313.
- 김수진 (2002).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방법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등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유미 (2009).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우리 아이 두뇌 들여다보기**. 도서출판 해나무.
- 김용희 (2006). 모유수유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 되어가기’의 심리적 과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라, 김진경 (2012). 아동의 발달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 22(1), 43-56.
- 박남자, 강숙현, 박경희, 백미열, 성경숙, 오채선 등 (2007). **아동발달**. 정민사.
- 박수연(2013). 영아와 부모의 특성 및 육아유형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월령단계 별 종단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정희, 장영애(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지**, 8(2), 327-353.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삼성출판사 편 (2009). **임신출산육아 대백과**. 서울: 삼성출판사.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성현란, 이현진, 김혜리, 박영신, 유연옥, 손영숙 (2011). **인지발달**. 서울: 학지사.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송연숙, 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신현정 (2006). 모유수유체험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9(2), 87-115.
-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9.

- 안지연 (1999). 아동의 정서능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양미선, 김양은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29-247.
- 오정순 (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이경선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선옥, 정은순, 안숙희, 문길남, 박남희 (2003).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9(4), 368-375.
- 이유미, 김진숙, 박진옥, 안지혜, 윤은영, 정영희 등 (2014). **영아발달**. 서울: 동문사.
- 이유미, 이정은 (2014). 어머니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지지가 3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59-281.
- 이유진, 박경 (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 이주영 (2012). 유아의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31(3), 801-822.
- 이화자, 김영혜, 조영란 (2005). 모유수유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및 관련요인-모유수유아 선별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11(2), 185-195.
- 임명희, 박윤조 (2011).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정서발달과 영아특성 변인, 어머니 특성 변인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4), 57-82.
- 임현주, 이대균 (2013). 영아의 기질과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25-144.
- 장군자, 김미예, 서순림, 신영희, 정귀애, 이인혜 등 (2008). 대구지역 ‘2005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별대회’ 참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1), 71-78.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6), 335-352.
- 정미라, 이정은, 박혜성 (2013). 출생조건과 일상생활습관에 따른 12개월 영아의 신체발육과 발달. **한국영유아보육학**, 81, 25-47.
- 정옥분 (2010). **영아발달**. 서울:학지사.
- 최정미, 우희정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한유미, 조경자, 강기숙 (2012). 영아 및 부모 특성과 12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성 관계 연구. **어린이 문화교육연구**, 13(3), 441-457.
- 허계형 (2006).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발달선별도구 K-ASQ (Korean-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의 적용. **충신대논총**, 26, 478-500.
- Abidin, R. P. (1992). *Parent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irginia: Pediatric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r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Casey, B. J., Tottenham, N., Liston, C., & Durston, S. (2005). Imaging the developing brain: What have we learned about cognitive development?.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3), 104-110.
- Evans, G. R., Boxhill, L., & Pinkva, M. (2008). Pover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The role of maternal stress and social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3), 232-237.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ensen, E. (2010). Introduction to brain-compatible learning, *뇌 기반 교육의 원리*(정종진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7).
- Memisevic, H., & Hadzic, S. (2013). Development of fine motor coordination and visual-motor intergration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14(1-2), 45-53.
- Wong, D. L., Hockenberry, M. J., Wilson, D., Winkelstein, B. A., & Kline, L. E. (2003).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St. Louis: Mosb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impac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3-month-old, breastfeeding and non-breastfeeding infa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based on the K-ASQ scale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533 3-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reastfeeding mothers felt less child-rearing stress than their non-breastfeeding counterparts, especially in parent-role stress. Second, breastfeeding infants exhibited a better personal sociality than non-breastfeeding infants. Third, it was found that mothers' child-rearing stress had an impact on all aspects of infant development in breastfeeding infants, and especially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al skills, having an impact of 12.4%. However, in non-breastfeeding infants, mothers' child-rearing stress had an impact only on communication and personal sociality development and exhibited a nonsignificant impact on other aspects. Lastly, it was found that mothers' parent-role stress, out of all aspects of child-rearing stress, was the main factor of negative impact on infant development in both breastfeeding and non-breastfeeding infa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have suggested family-level and society-level support measures to reduce mothers' parent-role stress and promote breastfeeding.

▶ *Key Words* : *childrearing stress, infant development, breastfeeding, non-breastfeeding*

논문투고 2015. 01. 02.
수정원고접수 2015. 02. 04.
최종게재결정 2015. 02. 07.